

## 전매광장



대유민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 간다. 코로나 시국에 갇혀 있던 아이들이 학교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마치 얼어있던 땅속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기지개 같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햇살처럼 환한 얼굴로 재잘재잘 즐거워 표정들이다. 필자도 과거 학창 시절이 마냥 그리워진다.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얼마나 설렘던가. 그런 그레도 참 행복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다”고 말할까? 웬 행복타령이나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성폭력 등의 뉴스를 보면서 우려스러움과 걱정은 직업병이 도진 건 아닌지 모르겠다.

## 청소년 성문화 개방 속도감

학교 폭력, 성폭력 피·가해자를 상담해 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문화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개방되어 성관계나 잘못된 성행위가 얼마나 빨리 심각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어린 청소년들만의 성문화 특성은 아니

##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다. 대학생들조차 불법촬영을 일삼고 단체폭방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타깃으로 삼아 폭력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입학은 말 그대로 핑크빛 설렘 그 자체다. ‘대학만 들어가면 해 보고 싶은 거 다 해보리라’고 한 번쯤 다짐한 경험이 누구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가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성이 우선되어야 할 가정에서부터 성적은 미래의 행복 순이 되고,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길들여진 청소년들은 부모가, 선배가,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기 주장이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탓이기도 하다.

성에 대한 담론이 점차 개방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아름다워야 할 청소년의 성의식은 전반적인 문화 수준의 향상과 정보화로 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초래되면서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개방적인 신세대 주류인 청소년들 간 많은 격차가 생기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건 몰라도 성에 대해서 만큼은 청소년 스스로 선택해 권리를 찾고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인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결정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 받거나 지배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여 주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체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성폭력 예방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마치 자식이 소유물인 양 옥박지거나 강압적인 양육법 또는 세뇌적 교육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모든 폭력적인 환경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닐까?

피·가해 청소년에게 “왜 그랬어?” 질책하기 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말을 새기고 실천해봄이 어떨지.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선 성 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고, 어른인 나부터 폭력에 대해 민감성을 기르며 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기에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모방하고 보는 대로 실천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 도와줘야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모두가 아는 진리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성이 달라진다. 아이들의 인생은 어른에게 달렸다고 한다면 과연일까?

이제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당당한 성, 즐거운 성을 실천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줄 때이다. 다행인 건 과거에 비해 성 의식이 많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그 변화를 믿는다. “행복하냐?” 물음에 “행복하다”는 청소년들의 답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 봄, 생명, 그 눈부신 아름다움

95세 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내 손을 붙들고 자기도 고아가 되었노라고 슬피 울던 생각이 난다. 떠나고 보내는 슬픔엔 빠름도 없고 늦음도 없는 오직 떠남만인 한 가지임이라. 무려 5천 살이나 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브리슬론 소나무에 비하면 사람의 100년은 비할 바도 못되는 데 말이다.

2009년 5월 함안 성산산성에서 700년 전 고려시대의 연꽃 씨 10개가 발견되었다. 그것을 다음 해 파종하니 10개 중 2개가 발아하여 꽃을 피워내서 ‘아라홍련’이라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동남아에 서식하는 등목어(燈木魚)란 물고기는 이름처럼 나무에도 올라가 숨을 고르기도 한다. 혼탁한 수질과 수초가 많은 극도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그만의 생존법인 것이다. 물 밖 고기를 상상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이런 일도 가능하고 700년 전 꽃씨가 발아하여 꽃을 피우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생명의 힘, 찬란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선 개가 200시간 만에 구조되었고, 사람도 1주일, 15일, 17일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그 어떤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놀라움이고 신비로움이고 눈부신이고 찬란한 기적의 역사(役事)다. 죽은 듯 매달렸던 나무에서 연

초록의 잎눈이 트고 나무둥굴에서도 파란 생명의 핏줄이 보이는 삼월, 나도 문득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살아있는 것들 속의 하나인 나를 감격스레 발견한다.

어찌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 코로나19와의 3년은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던 말처럼 우린 마스크를 벗고 있다. 마음껏 숨을 쉬고 자유로이 대화를 하고 서로 마주하며 가까이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이런 일상이 바로 살아있음이고 사는 것 곧 생명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일 때만 가능한 것들이다. 피어나고 있는 봄, 그 봄을 따라 물빛이 달라지고 하늘빛이 달라지고 바람의 냄새와 부딪쳐오는 느낌이 달라지고 그렇게 나와 당신의 마음에도 봄빛이 스며들고 있지 않는가. 아마도 지금쯤엔 언 땅을 뚫고 나와 목을 길게 뻗 갯강이풀 노루귀 바람꽃 습나물들이 가쁜 숨을 뿜어내며 신기한 듯 사방을 휘둘러 보고 있을 것이다. 그게 봄이다.

나도 오랜만에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하며 시원한 물줄기를 선사한다. 겨울을 잘 이겨내 주어 고맙다. 우리 같이 봄맞이하자. 물줄기 따라 겨울의 묵은 때도 벗어버리자. 생명, 이 눈부신 아름다움을 함께 환호하며 생명의 잔치를 열어보자. 지금 창밖에서 새들도 이런 내게 노래로 함께 하고 있다. 생명, 봄의 노래를.

##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주의보

후에는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화재장소보다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불길에 휩싸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며 대피 장소는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화재예방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관심 갖고 챙기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박준호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 에세이



최원현

수필가·문학평론가·(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월간 한국수필 발행인 겸 편집인

봄, 봄을 본다. 생명의 봄이다. 봄은 돌아오는 계절이다. 하지만 떠나는 것도 있다. 해서 산다는 것은 때로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속수무책으로 떠나는 이들을 망연히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슬픔으로 가슴에 안은 게 두 달 새에 여섯 분이나 된다. 원로 수필가 네 분과 시인 두 분이 1월과 2월 두 달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나셨다. 민선 통영시장 1, 2기를 지낸 고통주 수필가, ‘수필ABC’의 시인이자 수필가이신 전주 최승범 교수, 한국수필가협회 초대 사무국장 이숙 수필가, 한국문학 및 수필가협회 부이사장을 지내신 김병권 수필가 그리고 ‘시문학’ 발행인 김규하 시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오택만 시인이 가셨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라지만 80세에서 97세까지 순서도 없이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보면 일흔도 넘은 친구가

## 독자투고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의 조건을 가진 기후적 특성이 있다. 또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을때가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변질 수 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봄철 산불화재의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소각과 같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불예방의 첫걸음은 성양이나 라이더 등 화기물 소지 금지다. 또한 농촌 들녘에서는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소방서 또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신고

## 시설

## 신학기 대학가 이단종교 활동 경계를

전국적으로 이단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학기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사이버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이 기승을 띠고 있다. 사이버 종교 교수들의 실체를 폭로한 다큐멘터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특히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명단에 지역 일부 교회와 대학 동아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기존 종교단체들의 포교는 대학가와 도심 등에서 일상화되다시피 해 학생과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신학기와 같은 특정시기를 맞아 사이버 종교단체의 발호는 불편함을 넘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강력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단체의 접근 방식이 지능적이어서 선량한 시민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 MBTI(성격유형검사) 또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미끼로 접근해 이름, 학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봉사, 선교 등으로 위장하거나 학생회 임원이라고 내세운 이후 카페 등 열

린 공간에서 심리상담 또는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전남매일이 만난 한 대학신입생은 “버스를 기다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심리검사를 해준다면서 다가가 연락처를 받아갔다. 이후 계속 연락하면서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다. 선배를 통해 사이버 종교의 포교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연락할까봐 무서웠다”고 했다. 사이버 종교단체는 대학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 등을 타깃으로 하고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사이버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대학 당국이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캠퍼스가 원래 개방된 공간인 데다 종교단체의 활동을 무조건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은 학생과 시민 개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학당국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일반 동아리처럼 위장된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캠퍼스 내 사이버 종교단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들의 감시,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주목받는 전남의 C형간염 퇴치사업

전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C형간염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뤄져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남은 과거 유행했던 불법시술 등 여파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C형간염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터라 이번 조사가 더욱 주목받는다.

한국보건연구원원의 ‘2021년 만성 C형간염 환자 항바이러스 치료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C형간염 환자비율은 10만명당 36.97명으로 전국(19.55명)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17년 31.68명, 2018년 48.05명, 2019년 36.52명, 2020년 47.36명 등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2.36명, 20.87명, 18.92명, 22.86명이었다. 그중에서도 진도(179명), 신안(114명), 고흥(107명), 장흥(69명) 등 해안지역의 발병률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도내 C형간염 환자는 1만8,6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처럼 도내에 C형간염 감염자 또는 보균자가 넓게 퍼진 것으로 나타나자

적기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등 해안지역 6개 군에서 이뤄진다. 읍·면당 1,000명에서 2,000명을 선정, 신속진단키트를 통해 항체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이후 양성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치료 연계 등 후속 관리도 진행된다.

C형간염은 국가검진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무증상에 백신도 없어 발견이 어려운 질병이다. 2년 전 치료제가 개발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됐지만 여전히 고가인 치료비 탓에 치료율도 현저히 떨어진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 정부에 신규사업으로 건의해 2027년까지 도내 전역에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난후지역과 감염취약지역 산재한 지역민들을 위해 박수받을 일로, 전남이 지켜낸 시범사업이 C형간염 퇴치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집회 소음 준수로 상호 존중받는 집회문화

## 독자투고



이요한

광주 북부경찰서 경비과 경장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집회는 정당한 집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대부분의 집회가 예전보다 불법행위 없이 준비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부 집회에서는 집회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목소리는 공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소음 측정 대상을 구분하고, 시간대별로 주간, 야간, 심야에 따라 65-75db까지 등가소음도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최고소음도의 경우 75-95db까지 유지해야 하는 만큼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집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종종 거리에서 집회주최자의 발언을 귀 기울여 들을 때가 있다. 발언대에 올라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허용 기준이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국민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도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고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며 주장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동조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 질서와 존중의 집회문화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b>朴哲弘</b>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金善男</b>		편집국장 <b>姜露秀</b>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건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jndn@chol.com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